

## 한국 전후 여성의 문학-교양과 펄 벅의 위치

김양선\*

### 차례

1. 서론-여성 교양의 시대
2. 펄 벅 방한이라는 이벤트, 펄 벅의 여성론
3. 펄 벅의, 그리고 펄 벅에 대한 문학론  
-대중문학과 지역주의문학에 권위를 부여하기
4. 결론-펄 벅을 기억(Remembering)하고 재고(Rethinking)한다는 것

### 〈국문초록〉

이 글은 1960년대 여성-문학-교양의 연계 지점에서 ‘펄 벅’은 어떻게 의미화 되었는지, 그리고 ‘펄 벅’의 위치와 의미화는 전후 여성 교양의 형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펄 벅의 작품세계에 대한 비평을 재독해함으로써 학적인 인증 과정을 거친 펄 벅의 문학이 당시 여성-문학-교양 범주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960년 펄 벅 방한을 즈음하여 『여원』에 수록된 수행기, 작가들의 인상담, 작가론, 연설문 등을 재구성한 결과 펄 벅이 이상적인 여성성과 모성성을 세계시민의 요건으로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국여성의 위치에서 저개발국가의 여성을 교양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펄 벅의 문학론과 펄 벅의 문학세계에 대한 비평들은 ‘대중성(대중소설)’과 아시아라는 ‘지역성(지방색)’을 펄 벅 소설의 고유성으로 정의함으로써 여성-문학-교양의 형성에 기여했다.

\* 한림대학교 일송자유교양대학 부교수

결론적으로 펄 벅은 동아시아적 여성상과 ‘아시아(적 가치)’를 재정위(re-positioning)함으로써 여성 독자들의 문학/문화 교양 형성의 다른 축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설과 여성 관련 담론을 종합해 봤을 때, 펄 벅은 서양/동양, 아프레걸/현대화된 현모양처, 낭만적 사랑이나 섹슈얼리티의 추구/어머니 노릇의 획득과 같은 대립항에서 후자에 더 가치를 두었으므로 1960년대 전후 한국 여성들의 문학-교양의 형성에 참조가 되었던 것이다.

핵심어 : 펄 벅, 여성 교양, 문학 교양, 지역성, 동아시아, 세계시민, 여성성, 대중성

## 1. 서론-여성 교양의 시대

196~70년대는 잡지 미디어의 증가 시대, 대중교양의 개념이 정립되고 확산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1960~70년대 미디어와 출판계는 갖 부상하기 시작한 소시민 부르주아 계층의 독서를 통한 교양 형성의 욕망을 창출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전집-번역류의 읽을거리를 대거 생산하게 된다. 특히 당시 광고와 기사에 자주 등장했던 ‘세계문학’, ‘노벨문학상’, ‘베스트셀러’, ‘폴리처상’의 제호가 붙은 출판물들은 독서문화의 방향을 외국 번역물로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양한 종류의 세계문학전집, 각종 노벨문학상 전집·선집, 『세계베스트셀러선집』(휘문출판사, 1965)과 『세계베스트셀러북스』(신구문화사, 1970), 『세계대표베스트셀러전집』(서음출판사, 1979) 같은 전집류들이 “오대양 육대주를 발각 뒤집은 전후 베스트셀러의 정수”라든가 “세계문학의 백미, 인류가 낳은 고귀한 휴머니즘의 걸작들” 같은 광고 문구를 내세우며 등장했다.<sup>1)</sup>

1) 이용희, 『1960~70년대 베스트셀러 현상과 대학생의 독서문화 : 베스트셀러 제도의 형성과정과 1970년대 초중반의 독서 경향』, 『한국학연구』 41호, 인하대한민국학연구소, 2016, 45쪽.

미디어가 이끌고 대중들이 호응한 교양, 특히 문학-교양 붐은 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여성들에게 교양으로 특화된 영역은 문학 혹은 독서인 경우가 많았고,<sup>2)</sup> 이와 같은 교양 함양의 주된 장이 제도 교육인 학교를 제외하고는 잡지가 유일했다. 전후 발간된 여성지인 『여원』, 『여상』 등은 문화나 교양에 관심 있는 고학력 중산층 여성독자를 흡수하였다. 또한 여성작가들은 문학론, 작가론, 회고록 등의 글쓰기를 통해 문학에 관심 있는 여성 독자들을 교양의 차원에서 흡수했다. 교양-문화-문학은 서로 연동하면서 전후부터 1960년대까지 여성대중, 여성엘리트들의 지식 및 내면을 구조하는 역할을 했다. 즉 여성의 경우 문화-교양이 문학으로 특화되는 양상을 띠게 된다.<sup>3)</sup>

이 글에서는 1960년대 여성-문학-교양의 연계 지점에서 ‘펄 벅’은 어떻게 호명되거나 의미화 되었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펄 벅’의 위치와 의미화는 전후 여성 교양의 형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펄 벅의 작품세계에 대한 많지 않은 비평을 재독해함으로써 대중적 인기에 비해 문학성을 인정받지 못 했던 펄 벅의 글쓰기가 문학 교양의 차원에서 모종의 학적(學的)인 인증을 거치는 과정에서 어떤 요소가 부각되었고, 여성-문학-교양 범주와 관련성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펄 벅은 1938년 『대지』로 미국 여성작가로서는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2) 1950년대 후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여성의 교양 내지 문화생활이 독서, 문학으로 특화된 예를 볼 수 있다. 200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동아일보』 설문에서 여대생들이 좋아하는 책으로 언급한 것은 『슬픔이여 안녕』(프랑소아즈 사강), 『전쟁과 평화』(톨스토이), 『숨은 꽃』(펄 벅), 『좁은 문』(앙드레 지드), 『성서』, 『철학의 인식』, 『비밀일기』, 『풀잎』(윌트 휘트먼), 『개척자』(이광수) 등 주로 외국 문학 작품을 위주로 한 번역서들이었다. 특히 펄 벅, 앙드레 지드,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노지승, 『1950년대 후반 여성 독자와 문학 장의 재편』, 『한국현대문학연구』 30호, 한국현대문학회, 2010, 350~354쪽에서 재인용)

3) 김양선, 『근대 여성작가의 지식/지성 생산에 대한 계보학적 탐색』, 『여성문학연구』 2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19~20쪽.

수상하면서 한국에 소개되었다.<sup>4)</sup> 노벨문학상 수상자라는 레테르, 『대지』가 가진 대중성과 동아시아적 색채 때문에 펄 벅은 이후 한국의 지식, 미디어 장이 선호하는 작가가 되었다.<sup>5)</sup> 하지만 이와 같은 대중적 인기와 196,70년대 펄 벅 작품의 번역 수용 양상에 비해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다. 류진희는 해방기 펄 벅의 참고 및 번역을 통해서 그녀가 우익 남한여성의 모델로 받아들여졌다고 본다.<sup>6)</sup> 류진희의 연구가 해방기 남한 사회에서 참조한 펄 벅의 활동과 담론 연구에 그쳤다면, 김윤경은 1960년대 지식 장에서 수용된 펄 벅에 주목한다. 김윤경은 1960년대 펄 벅이 유교적인 동양문화의 가치를 긍정하고 가족주의와 모성을 높이 평가하는 ‘자애로운 어머니’로 호명되었다고 보고, 이런 교양 있는 어머니로 젠더화된 미국표상은 1950~60년대 한국사회의 대미인식을 긍정적으로 제고하는 데에 적극 참조되었다는 점을 여러 자료를 들어 밝히고 있다.<sup>7)</sup> 이들의 연구는 한국사회의 시대적, 정치사회적 맥락에 따라 펄 벅이 선택적으로 참조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바, 필자 역시 이들의 관점에 동의하는 바이다.

이 글에서는 선행 연구의 문제의식을 수용하되, 전후 여성의 문학-교

4) 류진희는 해방기에 펄 벅이 인도주의적 여성명망가로,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을 대신하는 탈이념의 계몽주의 여성정책을 뒷받침하는 인물로 전유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요컨대 펄 벅은 단순히 ‘여성’, ‘작가’를 넘어 식민지-해방기-1960년대 한국(식민지 조선)의 상황에 따라 달리 참조되고 수용되었다는 것이다.(류진희, 『해방기 펄 벅 수용과 남한 여성의 입지』, 『여성문학연구』 2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한편 김윤경은 식민지 시기 미국 내 아시아 전문가로서 젠더중립적 존재로 표상되었던 펄 벅이 1950년대 말 『숨은 꽃』, 『어머니』 등이 소개되면서 여성독자들에게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말한다.(김윤경, 『195~60년대 펄 벅 수용과 미국』,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8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442쪽)

5) 하지만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펄 벅은 미국 내 평단에서 널리 읽히지만, 진지한 문학과 베스트셀러 사이에서 어중간한 상태로 밀려나 있는 작가로 평가되어 왔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바 있다.

6) 류진희, 『해방기 펄 벅 수용과 남한 여성의 입지』, 『여성문학연구』 2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7) 김윤경, 『195~60년대 펄 벅 수용과 미국』,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8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양을 대중화하려는 시도 속에서 펄 벅이 적극 참조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1960년 펄 벅 방한을 즈음하여 『여원』에 수록된 수행기, 작가들의 인상담, 작가론, 연설문 등을 재구성함으로써 펄 벅이 한국의 여성-대중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 그리고 펄 벅을 통해 한국의 지식장과 문학 장이 대중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추측해 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펄 벅 자신이 쓴 문학론, 펄 벅에 대한 한국 지식장의 문학담론을 검토하여 본격문학의 열외에서, 여성독자들의 대중소설로 소비되던 펄 벅의 작품에 학적인 권위가 부여되면서 의미 있는 읽을거리로 자리 잡는 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 2. 펄 벅 방한이라는 이벤트, 펄 벅의 여성론

작품을 통해 매개되지 않은 펄 벅의 직접적인 발언, 펄 벅과 관련한 담론이 비등점이 이른 때는 1960년 11월(1960.11.1~11.10) 조선일보사와 여원사 초청으로 펄 벅이 한국을 처음 방문하면서이다. 펄 벅 방한이라는 이벤트는 10일간 계속되었다. 필자가 이 사건을 ‘이벤트’라 칭한 이유는 펄 벅의 방한이 『여원』, 『조선일보』를 비롯한 여러 미디어를 통해 전후 “최초의 유명 외국작가 방한”, “미국 최초의 여성 노벨문학상 수상자”라는 문구와 함께 광고되었고, 서울, 대구, 부산 등 대도시에서 열린 강연회에 수천 명의 청중이 모여들 정도로 화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10일간 펄 벅의 행적과 그녀가 강연장에서 쏟아낸 담론과 미디어의 보도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여성의 역할, 문학, 그리고 자유(주의)에 관한 것이다.

먼저 지금까지 찾은 『여원』 수록 펄 벅 관련 서지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sup>8)</sup>

8) 이 장에서는 여성의 문학-교양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전후 여성 대중의 교양화를 주도한 『여원』의 서지사항만 본문에 수록했음을 밝혀둔다. 『여원』과 함께 펄 벅 방한을 주도한 『조선일보』에도 펄 벅 방한을 전후하여, 그리고 그 후 펄 벅이 ‘펄

발간연월	제목	필자/성격
1960.11	필·벽女史를 맞이하며	모운숙
1960.12	-女性的 權利와 責任 -우리는 世界의 市民이다 -韓國民의 課題	강연록
1961.1	필·벽의 印象 / 孔德貴 作家論 : 필·S·벽 필·벽 隨行記 / 高延基 필 벽 印象記 이능한 話術 / 鄭寅燮 그의 藝術 / 張旺祿 招請後感 / 韓戊淑 뵈을줄 몰랐어요 / 韓末淑	인상기, 수행기, 작가론
1963.10	20세기 세계의 여인상-大地의 크신 어머니, 필 벽	장왕록
1963.12	女苑에 얽힌 追憶 필벽 女史招請	회고담, 인상기
1965.5	특집: 인류애의 사명/ 知性의 의미	퍼얼 벽

『여원』 1961년 1월호는 필 벽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강의한 ‘작가론’을 비롯, 필 벽 수행기(고연기), 필 벽 인상기(정인섭, 장왕록, 한무숙, 한말숙)로 이루어져 있다. 필 벽 자신이 직접 발화한 ‘문학’에 관련된 글은 이 ‘필 벽의 작가론’과 노벨문학상 수상연설 정도가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필 벽의 대중 강연 대부분이 여고와 여대에서 진행되었고, 한국의 엘리트여성의 역할을 정립하는 데 모종의 영향을 미쳤다

벽재단' 사업자 방한한 사실들이 여러 차례 실렸다. 방한을 전후한 기사들의 대표 목록은 다음과 같다.

장왕록, 『내가 만난 『필벽』여사, 그의 방한을 즈음해서』(1960.10.07.); 김현규, 『동서문화의 타협점, 동창생이 환영하는 『필·벽』여사의 내한』(1960.10.14.); 기사, 『동양은 내 마음의 고향 - 필벽 여사의 작품과 생애, 세계는 규모 큰 한 가정이고』(1960.10.31.); 『어릴 때의 향수는 영원한 것. 펜클럽 주최 필벽여사 초청간담회에서』(1960.11.04.); 『자유에의 세 가지 길. 필벽 여사 공개강연초. 여러분은 다 내 친구』(1960.11.04.); 『서울의 필벽 여사 이화여대서 강연회. "세세대의 애정관" 강조』(1960.11.09.); 장왕록, 『작가 필벽이 남기고 간 것. 문학인의 여가선용』(1960.11.14.)

는 지적에 펄자 역시 상당히 공감한다.<sup>9)</sup>

펄 벅 수행기와 인상기를 쓴 펄자들은 대개 (영)문학을 전공한 대학교수이거나 여성 작가였다. ‘여성’ ‘작가’라는 공통점,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에 대한 전문가의 소개를 매개로 펄 벅이 전후 남한 사회에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수행기나 인상기에서는 펄 벅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펄 벅 수행기』는 ‘위대한 대지(大地)같은 어머니’ 장으로 시작한다. 소녀 같은 여성성을 첫 인상에서 부각한 이 글은 펄 벅이 지방 강연을 가면서 한국 농촌 풍경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함으로써 타자-서양의 시선을 통해 전후 한국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오리엔탈리즘적 구도를 취하고 있다. 방한 당시 통역을 맡았던 정인섭의 『아늑한 화술』에서도 그를 작가이자 사회사업가, 사상가로 소개하면서도 “여사의 지성은 역시 여성다운 센치와 낭만으로 가끔 노출”되며, 그것이 그의 화술의 특징이라고 본다. “여성다운 부드러움과 지성인으로서의 총명과 작가로서의 환상이 그의 화술을 아늑하게 하고 있다.”는 진술에서 드러나듯 펄 벅의 작가성, 지성을 여성성이라는 성적 특성과 연관 짓는다. (『여원』, 1961.1, 159쪽) 한무숙의 『비를 줄 몰랐어요』는 여사를 인도주의자이지만 “against가 아니라 for-누군가를 위하여 살아온 모습”, ‘포근한 온정’, ‘부드러움’으로 의미화 한다. 한말숙의 『초청후감(招請後感)』에서도 “한마디로 여사는 어머니였다. 어머니도 따뜻하고 참을성 많고 아주 가정적인 어머니다.”라고 단언한다. 노벨문학상을 탄 작가이자 사회사업가이기 전에 이 소박한 인상기들에서는 펄 벅을 여성성이 몸에 밴, 어머니로서 의미화 함으로써 독자와의 간극을 좁히려 시도한다. 물론 일반 독자의 수용 상황을 염두에 둔 발화이겠으나 ‘against가 아니라 for’라는 표현<sup>10)</sup>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여성작가, 영문학자라는 권위있는

9) 김윤경, 앞의 논문, 445~446쪽.

10) 사실 이 표현은 한말숙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펄 벅이 방한 당시 숙명여자중고등학교 강연(‘우리는 세계의 시민이다’)에서 했던 말이다. “한 가지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무엇에 대해해서 번역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무엇을 위해

필자의 프리즘을 거쳐 한국 사회에 소개된 펄 벅은 ‘어머니’, 즉 모성성으로 수렴된다.

그렇다면 펄 벅 본인은 강연을 통해 여성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돌려 보자. 『여성의 권리와 책임』(이화여자중고등학교 강연, 『여원』, 1960. 12.)에서 펄 벅은 여성은 아내나 어머니로서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나아가 정부나 사회단체에서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불평등을 지적하면서 여성도 공적 영역에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데, 그 논리가 흥미롭다. (미국 여성 기준으로) 21살에 결혼을 하고, 27까지 아이를 낳아 31살 즈음 자녀들이 커서 양육의 짐을 덜게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남은 44년의 세월을 무엇을 할지 고민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펄 벅은 여성이 자기향상과 수양에 힘쓰면서 동시에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라고 요구한다. 이런 발화의 맥락에는 사실 여성이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한 후에 공적 영역에서 시민-국민으로서의 역할을 하라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

『우리는 세계의 시민이다』(숙명여자중고등학교 강연, 『여원』, 1960. 12.)에서도 펄 벅은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생활’과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나누어 설명한다. “가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기르는” 현모양처로서의 역할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sup>11)</sup>하면서 동시에 “세계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지닐 것을 권한다.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양립될 수 있는 것일까. 펄 벅에 따르면 “여자가 어떻게 가정을 잘 지켜 나갈 것인가,

---

서 그들과 같이 도와야만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어게인스트’가 아니라 ‘포’...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원』, 1960.12, 153쪽)

- 11) 김복순에 따르면 5.16 이후 1950년대의 ‘시민 우선성’(남성젠더), ‘여성 개인우선성’(여성젠더)에서 ‘어머니 우선성’으로 재배치된다. 즉 시민 사회의 구성원에서 국가 발전 동력으로서의 모성으로 여성 주체의 우선성이 전환된다. 시민교양도 국민교양으로 전환되는데, 5.16 이후 1962년 중순부터 이러한 경향은 뚜렷이 드러난다. 여성교양 내포의 변화는 계몽의 대상도 수정하였다. 1950년의 여성 지식인층이라 할 수 있는 ‘중상층’에서 1962년부터는 ‘전 대중’으로 수정된다. (김복순,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여성문학연구』 1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41쪽)



자녀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 그 가족들이 다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전에는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여원』, 1960.12, 152쪽) 펄 벅의 유비(analogy)에 따르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들을 살게 하여주고 안전하게 하여주는 그런 피난처인 거와 같이 아울러 온 세계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안식처로 만들어야” 하며, “어머니는 한 나라의 시민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시민을 기르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펄 벅은 여성의 시민권을 어머니로서의 역할에서 찾고 있으며, 그것도 “신임 받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어머니 노릇”을 강조한다.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역할이나 교양의 범위를 ‘모성(성)’에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학인에의 권고-작가 펄 벅이 남기고 간 것』(『조선일보』 인터뷰 기사)에서도 펄 벅은 여성이 “가정과 자녀를 돌보는 동안에 항상 지성을 닦아야 하며 책을 읽고 연구를 하고 생각을 넓히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하며, “여성이 교양을 소홀히 한다면 좋은 아내도 될 수 없고 훌륭한 세계 시민을 기를 수 있는 어진 어머니도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신문에서는 펄 벅의 주장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노오벨 문학상을 받은 유일한 미국여성이며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여성의 귀감이요 희망의 상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구-여성-작가/지식인의 발화를 통해 비서구-청소녀(혹은 여성 독자)에게 아내이자 어머니는 자기 수양을 통해 교양을 습득해야 하고, 이런 교양 있는 여성이 세계시민을 기를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이상적인 현대적 여성성과 모성성 모델을 제시, 강화하고 있다. ‘세계 시민’이라는 글로벌한 보편주의의 외피를 쓴 교양 있는 여성이라는 이상적 모델이 담론적 권위를 지닌 백인-지식인-제국 여성의 입을 통해 포스트 식민 한국 사회에서 발화되는 순간을 펄 벅의 방한 강연회는 보여준 셈이다.

펄 벅 방한이라는 이벤트를 『조선일보』와 함께 주관한 『여원』은 자기 매체의 주 독자층인 부르주아 여성을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교양 있는 여

성의 상을 제시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책임질 한국의 엘리트여성<sup>12)</sup>에게도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할 계기를 제공하였다. 펄 벅은 자기 규율, 세계시민과 같은 일종의 자유주의 이념과 일국의 가치를 뛰어넘는 세계시민으로서 여성을 위치 지으려 하였다. 여성의 역할이 사적 영역인 가정에서 몇 단계를 건너 뛰어 글로벌한 영역에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젠더 역할로 점핑하는 이 비약은 ‘세계시민’이 제국여성의 위치에서 저개발국가의 여성을 교양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호명된 개념이자 발화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펄 벅의 발화가 모성성, 여성성을 시민권과 연결지음은 물론 일국적 시각을 넘어서 글로벌한 차원으로 확장함으로써 당대 한국의 여성 대중에게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역할을 일정 정도 수행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sup>13)</sup>

12) 방한 기간 동안 펄 벅의 대중강연이 진명, 속명, 이화 등 대표적인 여고, 여대에서 이루어진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13) 김윤경은 펄 벅이 여성 엘리트에게 강조하였던 세계시민 의식이 사실상 가부장적 여성의 가치를 세계적인 의미로 격상시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한국 전쟁 이후 풍기문란과 성적방종의 문제로 매체에 자주 거론되었던 엘리트여성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현대적 현모양처 모델을 모색하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 백인 여성의 목소리로 발화되는 ‘아시아적 가치’의 옹호, ‘모성’과 ‘가정여성’의 역할 강조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내면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김윤경, 앞의 논문, 437~438쪽, 447쪽) 필자 역시 이 입장에 동의하는 바이나, 펄 벅이 자서전이나 『미국의 화약여성들』, 『남성과 여성에 대하여』와 같은 글에서 미국 내 여성의 종속적 지위와 해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발언하였음을 주목하고자 한다. 가령 펄 벅은 그의 자서전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하여』를 쓴 몇 년 후 미국여성의 상황이 변하였다고 진단하면서, 어머니 세대는 “부엌에서 뛰쳐나온” ‘화약여성들’이었던 데 반해 딸들은 집밖의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들”같이 결혼하고 싶어하고, 남편에게 의지하고 싶어한다고 비판한다. 그는 “지금 세대의 미국여성들이 남성을 끌기 위해서 자신의 개성을 포기하는 것이 보기 싫다”고 하면서, 이를 “전체주의의 전조”라고 주장한다. (펄 벅, 김귀수 역, 『나의 자서전』, 진문출판사, 1961, 287~289쪽) 이로 미루어 봤을 때 펄 벅이 방한 강연에서 현대적 가정여성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펄 벅 자신의 의도라기보다는 권위 있는 노벨상 수상작가이자 제국여성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당시 한국의 남성 중심의 지식 장과 미디어였던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성의 참정권과 사회참여에 대한 펄 벅의 여성주의적 입장은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미국판 버전으로 보인다. 피터 쿤은 펄 벅을 “전시에 평등주의 시각에서 성과 인종을 결

### 3. 펄 벅의, 그리고 펄 벅에 대한 문학론-대중문학과 지역주의문학에 권위를 부여하기

「이 영광 노오벨상을 받으며」<sup>14)</sup>는 보기 드물게 펄 벅 자신이 밝힌 문학론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의 소설 전통에서 자신의 문학관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펄 벅은 대중은 “예술적인 꾸밈이 아니라, 그들이 읽은 것이 현실성과 그들 자신의 실생활과의 비교”(174쪽)로 문학을 판단한다고 말한다. 때문에 “소설가는 순수문학을 목표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소설가는 시골 천막 안에 있는 이야기꾼”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의 작가수업」이라는 방한 당시 한국영어영문학회 환영회석상의 연설에서는 “내 작품은 흔히 쉽다(simple)고들 말한다. (...) 작가로서의 나의 야심은 읽기 쉬우면서도 위아래의 배음(倍音)을 가진 작품을 쓰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즉 펄 벅은 문학의 예술성보다는 “시골 천막 안에 있는 이야기꾼”과 같은 스토리텔러로서의 능력과 현실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자신의 작품을 쉬운, 즉 문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기는 비평에 반발하며, 읽기 쉽고, 두루 통용되는 대중성을 자신의 문학적 정체성으로 삼은 것이다.

이화여대에서의 문학 관련 강연에서 펄 벅은 미국문학의 전통으로 에드가 앨런 포우, 마크 트웨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윌리엄 포크너, 어네스트 헤밍웨이 등을 간략하게 언급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펄 벅이 이와 같은 미국문학의 전통에 자기를 위치 짓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지방색)을 논하는 데서 드러난다.

---

합시킨 소수의 페미니스트 중 하나였다”고까지 평가한다. 펄 벅의 활동과 『남성과 여성에 대하여』는 피터 콘의 책을 참고할 것 (피터 콘, 이한음 역, 『펄 벅 평전』, 은행나무, 2004, 376~383, 396~400쪽)

14) 1938년 노벨상 수상식에서 ‘중국의 소설’이라는 제목으로 한 강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대지의 신화-펄 벅의 인간과 예술』(신구문화사, 1960)에 수록되어 있다. 앞으로 문학론의 인용 면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책의 면수를 따를 것이다.

내 책이 출판되자마자 미국사람들은 그것이 중국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똑같은 공통된 문제가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를 매우 기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작품이 인도적인 것이 되기를 바랐지 중국적인 것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원』, 1961.1. 151쪽)

펄 벅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문학은 고정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는 유동적인 것이며, 따라서 주위 사람들의 감정이나 생활을 쓰라는 것이다. 미국문학의 전통을 호명하면서도 그것을 부정하고, 주위 사람들의 감정이나 생활을 쓰는 보편성과 휴머니즘을 강조하는 것은 미국문학의 전통 내지 미국문학 담론 장에서 홀대받았던 자신의 문학을 존재 증명하려는 알리바이이기도 하다. 요컨대 자신의 소설의 지향점 내지 특성에서 ‘중국적인 것’을 지우고 ‘인간주의’를 내세우고, 문체와 미학과 같은 문학성 내지 예술성을 대중의 일상과 감정으로 대체함으로써 ‘대중소설’ 작가로서의 자신의 위치에 의미를 부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펄 벅의 문학관은 펄 벅에 ‘대한’ 문학론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른바 ‘대중성(대중소설)’과 아시아라는 지역성(지방색)을 펄 벅 소설의 고유성으로 발견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에서는 펄 벅의 소설을 다수 번역하고<sup>15)</sup>, 미국과 한국에서 펄 벅을 만났으며, 작품세계에 대한 글을 쓴 영문학자 장왕록(張旺祿)의 문학(문화)번역자로서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신구문화사에서 노벨수상작가 평전 총서의 1권으로 『펄 벅의 인간과 예술-大地의 神話』를 발간한 것도

15) 현재 정리된 서지사항에 근거하면 전후 펄 벅의 소설 번역은 1953년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서 온 두 처녀』(장왕록, 학우사, 진명문화사, 1953), 『대지』(김성철, 태극사, 1953), 『여학사(女學士)』(홍복유, 精研社, 1953), 『인생항로』(이진섭, 정음사, 1953)가 같은 해에 발간되었다. 이때부터 펄 벅의 소설은 해를 거르지 않고 꾸준히 여러 출판사에서 번역되었는데, 펄 벅 방한을 전후한 1959년에서 1961년까지에는 번역 빈도수가 급증한다. 자세한 번역 사항은 김병철, 『世界文學翻譯書誌目錄總覽: 1895~1987』, 국학자료원, 2002를 참고할 것.

펄 벅의 방한에 발맞춘 출판사의 편집 전략이자 장왕록의 역할이 컸다. 책의 서문에서 장왕록은 펄 벅의 작품이 “노벨상 수상작가 중에서도 대중적 성격을 많이 띠고 있고”, “눈에 띄이게 기교를 부리지 않는다. 그리고 읽기 쉽다는 점에서 대중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상에 흐르거나 좌충우돌적인 즐거리를 써서 안이한 센세이션을 피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대중들에게 ‘어필’하는 보편적 요소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장왕록의 펄 벅 소개 및 연구는 펄 벅을 사회사업가가 아닌 작가(문학인)으로서 평가하려는 시도였다. 그는 펄 벅=대중작가라는 당대 굳어진 공식을 수용하면서도, 미국문학의 전통 속에서 소위 대가, 정전으로 자리 잡은 작가와 작품과 펄 벅의 작품 세계를 비교하면서, 역설적으로 펄 벅을 대중작가라는 세간의 통념으로부터 구출하려는 듯하다.

『대지의 신화』에 수록된 『현대 미국문학과 펄벅』, 『예술적인 대중작가 펄벅』, 『톨스토이와 펄벅의 문학』, 『펄벅과 휴머니즘』은 펄 벅의 문학 세계를 규명한 글들이다. 『예술적인 대중작가 펄벅』에서는 서머셋 모옴과 펄 벅의 공통점을 대중작가이면서도 인물묘사와 소설의 구성에 공을 들인 예술성을 겸비한 작가로 평가한다. 『톨스토이와 펄 벅의 문학』에서도 두 작가의 공통점으로 평민(대중)을 그리는 것, 고답적인 예술을 거부하는 것을 꼽는다.

펄 벅의 작품은 자주 인류와 사회에 관련된 주제를 취급하면서도 결코 교훈조나 선전조를 드러나게 하는 일이 없고 인물묘사와 소설의 구성에 주력을 기울였음을 본다. 그리하여 독자는 등장인물과 살이 닿는 듯한 친근감을 갖게 된다. 모옴의 작품 역시 그러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예컨대 『인간의 굴레』를 자연주의 작가 드라이저는 극구 찬양했지만 펄 벅은 한편 드라이저를 사숙한다. 여사는 드라이저가 인생의 소박성과 감정적인 면을 잘 그려냈고 또 작품량이 막대한 것을 좋아하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 세 사람의 연대관계는 그들이 인간이 유전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를 좋아하고 객관적으로 쓰기를 좋아하는 작가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드라이저와 달라 모옴과 펄 벅은 인생관에 있어서 낙관적인 편에 선다. 한편 비도덕적인 여자를 재미있다는 듯이 즐겨 그리는데 모옴에 비해서 펄 벅은 윤리적인 관심을 잊지 않고 또 항상 인간의 운명과 사해동포의 주제를 생각하고 쓴다. 모옴의 작품이 피상적인 감을 주는 데 반하여 펄 벅의 작품에는 엄숙한 종교성의 그림자가 있을 만큼 깊이가 있고 감동적이다. (214~215쪽)

다소 길게 이 글을 인용한 이유는 장왕록이 펄 벅의 ‘대중소설’에서 문학성 혹은 ‘예술성’을 톺아내는 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가령 모옴, 드라이저와 유사하게 인간(성)의 다양한 면모를 현실적으로 그리면서도 낙관적이고 윤리적이고 깊이가 있다는 점에서 펄 벅이 드라이저나 모옴보다 낫다는 식의 비교우위의 서술방식을 통해 펄 벅을 고평한다. 이로써 펄 벅은 대표적인 영미소설가인 드라이저나 모옴과 유사하거나 더 우월한 위상을 점하게 된다. 『톨스토이와 펄 벅의 문학』에서도 펄 벅과 톨스토이의 공통점을 한 축에, “獨房祕曲格”의 프루스트의 소설이나 20세기의 실험적인 소설 기교를 반대 축에 놓고 비교하면서 펄 벅이 단순히 대중문학 작가가 아니라 “웅대한 스케일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는 숨씨가 대단한 작가”라고 고평한다.

무엇보다도 세계문학과 지방문학, 로컬과 글로컬의 관점을 도입한 『현대 미국문학과 펄 벅』에서 개진한 논의가 흥미 있다. 장왕록은 펄 벅의 『대지』 등 중국 배경 작품을 ‘지역주의(regionalism)’ 문학의 장르에 위치 짓는다. 그는 지역주의 문학의 전신으로 19세기 후반 지방색(local colorism)문학을 언급하면서 그 특징으로 낭만주의와 사실주의가 결합된, “먼 땅, 이상한 복장, 이향(異鄕)적인 풍경, 색다른 언어, 진기한 관습” 등 오리엔탈리즘적인 요소를 꼽는다. 저자는 펄 벅의 동양 배경 작품이 지방색 문학의 특징을 띠면서도 이면적으로는 “보편적인 인간상을 예술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일종의 보편성과 탈지역성을 강조하면서 펄 벅의 위상을 높이려 한다. 이를 위해 “펄 벅이 중국을 무대로 하여 썼으면서도

지방색 작가가 아니라는 것은 여사가 지역주의 작가로 불리워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210쪽)라고 지방색 문학과 지역주의 문학을 구별한다. 그에 따르면 지역주의 문학은 “한 지역을 그리면서도 그 지역의 문화적,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에 대하여 창의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211쪽)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미국문학의 대표 작가들, 가령 싱클레어 루이스, 드라이저, 윌리엄 포크너, 울프, 존 스타인벡 등을 펄 벅과 동일한 ‘지역주의’ 작가로 놓고 담론화 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그럼으로써 펄 벅은 미국문학의 전통 속에서 정전화된 윌리엄 포크너나 존 스타인벡과 동일한 작가적 위치를 점하게 되는 것이다.<sup>16)</sup> 이는 펄 벅을 ‘대중소설’, ‘로맨스 소설’ 작가로 묶으려는 당대 미국과 한국 문학계의 지배적인 평에 대응하려는 적극적 시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지방(local)과 지역(region)을 구별하면서 일종의 로컬에서 연상되는 향토성, 토착성, 야만성과 같은 서구-제국의 동양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을 경계하고, 문학의 보편성, 휴머니즘을 강조하려 한 시도는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참신한 바가 있다.

이와 같은 문학(문화) 번역자로서 장왕록의 시도가 당시 여성독자들의 문학·교양 형성에 영향을 끼쳤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1950년대 이후 여러 세계문학전집을 통해 반복적으로 소개되었던 『대지』를 비롯한 펄 벅의 장편소설들, 『펄 벅 전집』<sup>17)</sup>의 주요 번역자이자 해설자로서, 그

16) “열거한 지역주의 작가의 명단을 보면 미국의 중요한 현대작가는 거의 모두 지역주의 작가에 속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물질문명이 세계에서 최고도로 발달한 미국의 큰 도시에서는 어디를 가나 판에 박힌 듯한 기계문명의 단조로운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그런 곳은 인간의 기본적인 현실로 파고 들어가서 인간 본연의 자태를 그리려는 작가에게는 사막같이 느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방에 활거하여 그들이 익숙하게 아는 도시나 시골 지역을 배경으로 하여 더 풍부한 소재를 얻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다른 지역작가들이 각자 미국내 시골 지방을 그려냈듯이 펄 벅은 미국인에게는 낯선, 중국을 묘사했던 것이다.”(211쪽)

17) 펄 벅 전집은 전후 최소 두 번 이상 발간되었다.

『펄 벅 전집』 1~5(大洋書籍, 1970) : 1. 대지(장왕록), 새해, 별 하나, 웃음의 선물, 죽음과 새벽(양찬규(梁燦圭) 2. 갈대(장왕록) 새 출발, 텔리게이트한 분위기, 미인

리고 펠 벅 방한을 즈음하여 펠 벅의 작품세계를 한국 독자 대중에게 소개하는 전신자로서 장왕록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펠 벅의 작품을 단순히 베스트셀러 작가로 소비하지 않고 독자들이 미국문학의 맥락에서, 그리고 세계문학의 장에서 이해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는 있다. 장왕록은 펠 벅을 한국에 소개하기 위해 『여원』, 『여학생』과 같은 여성잡지, 『사상계』, 『조선일보』와 같은 교양지, 일간지에 두루 글을 썼다. 성별과 세대, 대중성과 학지(學知) 체계를 횡단하는 글쓰기를 통해 펠 벅은 1960년대 대중 교양의 장, 여성 교양의 장에서 대중성과 (지역성으로 수렴되는) 고유의 문학성을 겸비한 작가로 수용되었던 것이다.

#### 4. 결론-펠 벅을 기억(Remembering)하고 재고(Rethinking)한다는 것

펠 벅은 1960년대를 지나 1970년대까지 단독 전집이나 세계문학전집의 일부로 계속 소개되었다.<sup>18)</sup> 1950년대 말부터 196,70년대까지 교양열과 그 세례를 받은 문학소녀의 등장, 교양-문학-젠더의 접점을 보여주는 예가 ‘펠 벅’이다. 물론 이 ‘펠 벅’이라는 기호를 대체할 작가나 여성 인물은 꽤 있다. ‘전혜린’, ‘프랑소아즈 사강’<sup>19)</sup>, ‘루이제 린저’ 등이 196,70년대

(양찬규) 3. 북경에서 온 편지, 모란꽃, 결혼(양찬규) 4. 숨은 꽃 외 3편(장왕록) 5. 자서전(自敘傳), 벨리사, 서민의 이야기(양찬규)

『펠 벅 전집』1~5(韓英出版社, 1976) : 1. 대지, 북경에서 온 편지(홍사중) 2. 아들들(홍사중), 3. 분열된 집안, 단편(홍사중, 이호성) 4. 결혼의 肖像, 싸우는 天使(이호성, 김병철) 5. 숨은 꽃(장왕록)

18) 1970년대(그리고 아마도 1980년대 초반까지)는 195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전집붐의 여진이 남아있던 시대였다. 이 전집(들)은 대중들의 교양열을 알려주는 지표였음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 펠 벅 외에 셰익스피어, 헤르만 헤세, 어네스트 헤밍웨이, 프랑소아즈 사강 등이 단일 작가 전집 목록에 그 이름을 올렸다. 대중들의 문학-교양의 취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여성독자들의 문학열을 이끌었던 다른 기호이자 이름들이다. 그런데 전혜린, 사강, 루이제 린저와 펄 벅의 함의는 다르다. 전혜린의 우울과 관념성, 사강의 도발성, 사강의 후예로 불렸던 최희숙, 박계형 등 여대생 작가들의 선정성이 그 나름의 대중성을 확보했다면, 특히 한국의 (여성) 독자들, 그리고 출판계가 좋아했던 작가 펄 벅은 다른 맥락에서 당시 젠더화된 문학·교양의 축을 담당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여학생들의 감성구조와 취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독서경향 설문에서 드러난다. 여학생들은 “이론적인 서적보다 정서적인 책을 좋아”하며, “모성애에 관한 책과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펄 벅의 『숨은 꽃』은 토마스 하디의 『테스』,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 혹은 『제인 에어』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같은 정서와 모성애를 다룬 대중소설, 감상적 연애소설의 일부로 소비되었던 것이다. 이는 펄 벅의 소설이 앞서 장왕록의 학술적 비평의 프리즘을 거쳐 지역주의 문학, 보편적 휴머니즘 문학으로 정의된 반면 여학생의 감성 영역에서는 대중문학으로 소비되는 양가적 위치를 점했음을 뜻한다.<sup>20)</sup>

19) 프랑소아즈 사강은 『슬픔이여 안녕』이 1955년 처음 번역되었고, 작가 전집이 발간될 정도로 이례적으로 한국에서 대중적 인기를 끌었다. 사강의 여주인공은 실존주의의 외피를 쓴 아프레 겔로 한국의 독서시장에서 소비되었다. 권보드래는 이 이례적인 인기를 “여성화되고 통속화된 실존적 감각”이라고 말한다. (권보드래, 『실존, 자유부인, 프래그머티즘』, 『한국문학연구』 35호,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8, 123쪽)

참고로 사강 전집은 펄 벅 전집과 비슷한 시기에 발간되었다.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강 전집』 1~7(세종출판공사, 1970) : 1. 슬픔이여 안녕(이 향) 2. 어떤 미소(이 평우) 3~4.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신기한 구름(방 곤) 5. 북소리(원윤수) 6. 달이 가고 해도 가고(방 곤, 이 향) 7. 찬물 속의 한줄기 햇빛(원윤수 외)

20) 1950년대 말 『學生들의 讀書傾向』(『조선일보』, 1959.10.20.) 설문조사에서 진명여 중고 학생들은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 토마스 하디의 『테스』, 펄 벅의 『대지』를 많이 읽었다고 답했다. 『大學生들의 讀書傾向』(『조선일보』, 1960.1.29.)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이대, 숙대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여대생들이 선호하는 책들은 주로 외국소설이었다. 문과여대생들은 『테스』, 『죄와 벌』, 『부활』, 『좁은 문』, 『숨은 꽃』의 순. 이과여대생의 경우 『테스』, 『숨은 꽃』, 『주홍

프랑소아즈 사강은 아프레 걸의 도발성과 자유(주의)로,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는 여성작가의 삶과 고뇌로, 그리고 이 소설을 번역한 전해린<sup>21)</sup>이 엘리트 여성지식인의 뜻밖의 자살과 유고 에세이집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로 여대생을 비롯한 전후 (특히 젊은) 여성독자의 문학-교양 형성에 한 축을 담당했다. 한국의 ‘사강’으로 불리며 1960년대 초반 독서시장을 장악한 여대생 작가들<sup>22)</sup>이 1960년대 기존 여성문학 장과는 다른 파격적인 등단 경로를 통해 베스트셀러의 한 축을 점하고, 루이제 린저를 번역한 전해린이 그녀의 극적인 죽음과 에세이를 통해 한국이나 미국이 아닌 유럽에 대한 여성독자들의 동경과 교양 욕구를 충족했다면, 펴 벅은 오히려 『대지』, 『숨은 꽃』 등의 소설을 통해 동아시아적 여성상과 ‘아시아(적 가치)’를 재정위(re-positioning)함으로써 여성독자들의 문학/문화 교양 형성의 다른 축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소설과 여성 관련 담론을 종합해 봤을 때, 펴 벅은 서양/동양, 아프레걸/현대화된 현모양처, 낭만적 사랑이나 섹슈얼리티의 추구/어머니 노릇의 획득과 같은 대립항에서 후자에 더 가치를 둬으로써 1960년대 전후 한국 여성들의 문학-교양의 형성에 참조가 되었던 것이다.

---

글씨, 『제인에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순이었다고 한다. (윤금선, 『근현대 여성 독서연구』, 『국어교육연구』45집, 국어교육학회, 2009, 162~163쪽)

- 21) 전해린은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를 1961년 번역했으며, 그보다 앞서 프랑소아즈 사강의 『어떤 미소』를 1956년 번역하였다.
- 22) 여대생 작가 최희숙의 『슬픔은 강물처럼』(1959), 신희수의 『아름다운 수의』(1960), 박계형의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1964). 이상 여대생 작가들의 작품 활동은 조은정, 『1960년대 여대생 작가의 글쓰기와 대중성』, 『여성문학연구』 2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을 참고하였다.

## 참고문헌

### 1. 자료

- 펄 벅, 김귀수 역, 『나의 자서전』, 진문출판사, 1961, 287~289쪽.  
장왕록·한말숙 편역, 『대지의 신화-펄 벅의 인간과 예술』, 신구문화사,  
1960, 145~258쪽.

### 2. 단행본

- 김양선,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 장의 형성-문학제도와 양식』, 소명출판,  
2012, 26~28쪽.  
피터 콘, 이한음 역, 『펄 벅 평전』, 은행나무, 2006, 376~400쪽.

### 3. 논문

- 권보드래, 「실존, 자유부인, 프래그머티즘」, 『한국문학연구』 35호,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8, 101~147쪽.  
김복순,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여성문학연구』 18호, 한국  
여성문학학회, 2007, 7~60쪽.  
김양선, 「근대 여성작가의 지식/지성 생산에 대한 계보학적 탐색」, 『여성문  
학연구』 2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7~30쪽.  
김윤경, 「1950~60년대 펄 벅 수용과 미국」,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8집, 한  
국문학이론과 비평 학회, 2013, 435~457쪽.  
노지승, 「1950년대 후반 여성 독자와 문학 장의 재편」, 『한국현대문학연구』  
30호, 한국현대문학학회, 2010, 345~375쪽.  
류진희, 「해방기 펄 벅 수용과 남한 여성의 입지」, 『여성문학연구』 28호, 한  
국여성문학학회, 2012, 181~204쪽.  
심상욱, 「동서융합의 관점에서 본 펄 벅의 페미니즘」, 『동서비교문학저널』  
15호, 한국동서비교 문학학회, 2006, 63~82쪽.  
윤금선, 「근현대 여성 독서 연구」, 『국어교육연구』 45집, 국어교육학회,

2009, 149~194쪽.

이용희, 「1960~70년대 베스트셀러 현상과 대학생의 독서문화 : 베스트셀러 제도의 형성과정과 1970년대 초중반의 독서 경향」, 『한국학연구』 41호, 인하대한국학연구소, 2016, 43~76쪽.

조은정, 「1960년대 여대생 작가의 글쓰기와 대중성」, 『여성문학연구』 2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87~118쪽.

## Abstract

### Korean Women's Literature-Culture in post Korean War and Pearl Buck's Position

Kim, Yang-sun

This article seeks to find out how 'Pearl Buck' was related with Korean women-literature-culture in the 1960s, and how the position of 'Pearl Buck' was related with the formation of post Korean war female culture. We also look at how Pearl Buck's literature was related to the women-literature-culture category at that time through re-reading the criticism about her literary world.

The writing about accompanying Pearl Buck, her speech contained in <Ryeowon>, which is published around the time of Pearl Buck's visit to Korea in 1960, shows that Pearl Buck presented ideal femininity and motherhood as a requirement for the world citizens. This can be seen as a strategy to cultivate wome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in the position of imperial woman.

Meanwhile, Pearl Buck's literary theory and criticism about Pearl Buck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women-literature-culture by defining "popularity" and "locality" as the uniqueness of Pearl Buck's novels.

In conclusion, Pearl Buck was in charge of shaping the literary/cultural culture of female readers by re-positioning "Asia" and defining Korean and East Asian female statues as desirable. Among the binary opposition like West/East, apeure girl/modernized good mother and wife, pursuit of romantic love or

sexuality/mothering, Pearl Buck became the reference of the culturalization of Korean women by evaluating the latter's category.

Key words : Pearl Buck, women's culture, literary culture, regionality, East Asia, world citizen, femininity, popularity

■ 본 논문은 2019년 3월 15일에 접수되어 2019년 3월 19일부터 4월 6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9년 4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